

비건 확산에 대체식품 시장 ‘쑥쑥’… 2026년 2억弗 넘는다

친환경·동물복지 관심 증가
계란 대체식품 등 개발 성과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 생길 것”



신세계푸드 모델들이 ‘유아왓유잇 식물성 순대볶음’ 밀키트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푸드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다양한 비건 음식들이 등장하고 있다. 계란의 대체 식품이 개발되면서 냉동 김밥 등의 제품에서 콩으로 만든 대체 계란이 사용되는가 하면, 100% 식물성 원료로 개발한 식물성 순대도 등장했다.

건강한 식사를 원하고 육식 소비를 줄이는 비건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진 대안식품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016년 4760만달러(약 635억원) 수준이었던 국내 식물성 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 규모가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해 2026년에는 2억1600만달러(288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채식비건협회도 국내 채식 인구가 2008년 15만명에서 지난해 250만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300만명을 넘

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친환경,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늘어나고 채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 유통업체는 관련 상품 개발 및 출시를 통해 보다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푸드테크 기업 메타텍스처는 녹두, 대두, 단호박 등의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해 대체 계란을 구현했다. 동일한 단백질 함량을 가지면서 기존 계란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지

방 함량을 줄였고, 칼로리도 더 낮다. 기존 식품과 식감에서 오는 이질감이 낮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재료가 콩이기 때문에 일반 계란보다 가격이 30~40% 저렴할뿐더러 비교적 가격을 안정감 있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메타텍스처의 식물성 계란은 현재 삶은 달걀을 비롯해 달걀 프라이, 지단 스크램블에그를 선보이고 있으며, 제빵용 달걀 분말 제품도 개발 중에 있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프리미엄 순대 전문점 순대실록과 협업해 ‘유아왓유잇(You are What you Eat) 식물성 순대볶음’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이번 협업은 더 나은 음식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음식 선택권을 제공하자는 양사의 뜻이 모여 진행된 것으로, 양사는 6개월간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유아왓유잇 식물성 순대볶음’은 신세계푸드가 100% 식물성 원료로 자체 개발한 식물성 순대와 순대실록의 170시간 숙성 비법 레시피를 접목한 냉동 밀키트다. ‘유아왓유잇 식물성 순대볶음’에 쓰인 식물성 순대는 신세계푸드가 대두단백, 당면, 양배추, 당근, 양파, 마늘 등 식물성 원료로 순대의 탱글한 식감을, 카카오 분말로 순대의 색상을 구현한 누드 순대다. 여기에 순대실록의 대표 메뉴인 순대곱창볶음의 양념과 채소를 한 번에 넣어 가정에서도 순대실록 매장에서 먹던 순대볶음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G마켓, SSG닷컴 등 온라인몰뿐 아니라 ‘유아왓유잇’ 코엑스점에서 판매한다.

신세계푸드는 이번 ‘유아왓유잇 식

물성 순대볶음’을 비롯해 소비자들이 각자의 기호와 신념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혁신적인 대안식품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부가 식물성 대체식품 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식품업계의 식물성 제품 개발은 점점 더 고도화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식물성 식품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선보이고 비건 만두, 떡갈비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풀무원도 ‘지구식단’ 브랜드를 통해 대체육, 두부면 등 식물성 원료로 만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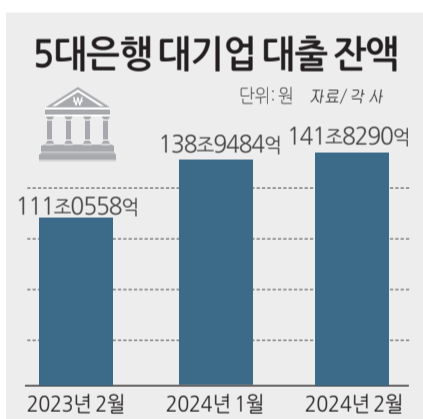
동원F&B 역시 식물성 대체식품 브랜드인 ‘마이플랜트’를 통해 비건 참치와 만두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식물성 식품 시장이 초기 단계이지만, 소비자들의 환경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감에 따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취식 경험이 늘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대기업 대출 1년새 30조 ↑… 140조 돌파

5대은행 기업대출 잔액 776.7조
신용위험 커지며 대기업 영업 확대



국내 5대은행의 대기업대출이 1년새 30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14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지자 대기업 대출 영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경기불황에 은행권을 찾는 대기업도 늘고 있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기준 776조7107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565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전인 지난해 2월말과 비교하면 65조7871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대기업 대출잔액은 141조8090억원으로 전월 대비 2.1% (2조8606억원), 1년전과 비교해 27.8% (30조7532억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34조9017억원으로 전월 대비 0.59% (3조7051억원), 1년전과 비교해 5.4% (35조339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이 일반적인 연간 성장률(5%대)을 기록한 것과 달리 대기업 대출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늘린 이유는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는 평균 5.3%로 2012년 5.6%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과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로 채무 상환여력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0.12%로 1년전과 비교해 0.07%포인트(p)오른 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48%로 같은 기간 0.16%p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당국은 지난달 스트레스DSR을 도입한데 이어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사에게 자체 관리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압박과 중소기업 부실이 더해지면서 은행들의 영입이 대기업대출에 쏠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대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많은 상황이라서 우량자산 위주의 기업대출을 확대해 수익을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은행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기업대출)최소 10% 가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WD-키옥시아 합병 변수… 출혈경쟁 우려도

>> 1면 ‘D램시장 봄바람’서 계속

이에 따라 D램 기술 경쟁도 다시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가 AI 가속기 시장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진 엔비디아와 HBM 협력을 이어가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상황, 삼성전자도 뒤늦게나마 HBM 개발에 속도를 붙이며 주도권을 지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이어 마이크론에도 주도권을 잃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HBM 개발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을 뿐 경쟁사와 비교하면 개발 인력이나 규모에서 뒤처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SK하이닉스가 전략을 잘 세우고 대응하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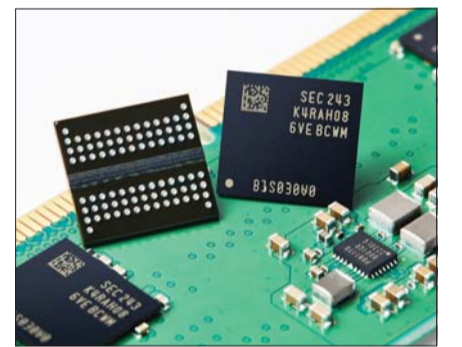
◆ 낸드 시장도 회복세

낸드플래시 시장도 훈풍이다. 트렌드포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114억 9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24.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매출 42억달러로 점유율 36.6%, 전분기보다도 5.2% 포인트 확대했다. SK하이닉스와 솔리다임도 24억8000만달러로 점유율 21.6%를 기록, 전분기보다 1.4% 포인트 성장했다.

1분기도 긍정적이다. 비수기 속에서도 추가로 20% 증가할 전망, 서버뿐 아니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수요 급증이 이어질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예상했다. 공급망 재고 개선과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가격 상승폭이 25%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단 경쟁 업체들과 차이는 크다. 양사 합산 점유율은 58.2%로 과반을 훌쩍 넘는다. 웨스턴디지털(WD)이 14.5%,



삼성전자 12나노급 D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BM3 D램 /SK하이닉스

키옥시아가 12.6%로 전분기 대비 각각 2%포인트씩 점유율을 뺏겼다.

WD와 키옥시아가 여전히 합병을 논의 중이라는 점은 변수다. 키옥시아가 자금난으로 다시 증산을 준비 중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사가 합병하면 30%에 가까운 점유율로 시장 장악력도 높아진다. 공급 과잉을 무릅쓰고 증산을 단행하기도 수월해진다는 의미다. 치킨게임 우려도 나온다. D램 시장이 2010년을 전후로 출혈 경쟁을 펼치면서 일본 엘피다가 파산하고 하이닉스도 파산 위기에 놓였던 것처럼, 양사가 합병후 증산에 나서면 심각한 실적 악화와 함께 업계 재편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보이지 않는 압박도 심해졌다. SK하이닉스가 베인캐피털을 통해 키옥시아 지분을 보유하고 합병을 반대하는 상황, 일본 등 매체에서는 한국 정부가 SK하이닉스를 압박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외환보유액 4157.3억달러… 2개월 연속 감소

달러강세 영향… 한달새 3000만弗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57억3000만달러(약 555조2000억원)로 집계됐다. 전월(4157억6000만달러)보다 3000만달러 감소한 금액이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이유는 미국 달

러와 가치가 높아지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기타통화의 외화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달러화 지수는 전월 대비 0.6% 올랐다. 반면 미국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0.1% 줄었고, 파운드화와 호주달러화 환율도 각각 0.3%, 1.6% 감소했다. 엔화는 2.0% 떨어졌다.

자산별로 보면 국제화 회사채 등 유가증권(3695억2000만달러)이 8억3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

별인출권(SDR·150억7000만달러)이 1억 3000만달러 늘었다. 예치금(218억 1000만달러)은 9억7000만달러 줄었고, 금은 전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1월말 기준 4158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193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1조2918억달러)과 스위스(8572억달러), 인도(6200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나유리 기자